

< 2022년 교회표어 >

복음으로,

교회를 새롭게 세상을 이롭게(신16:11, 막1:15, 행2:47)

복음으로, 교회를 새롭게 세상을 이롭게(1)

- 사도신경
- 찬 송 93장
- 기 도
- 성경본문 [마가복음 1장 15절]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시더라

| 삶 나누기

처음으로 복음을 접했을 때는 언제였나요?

그때 어떤 기분이셨나요?

말씀 나누기

한국교회가 지금 위기라는 것은 이제 상식에 속하는 사실입니다. 오래전부터 한국교회 위기론이 대두되었지만, 그때는 의식이 있는 일부의 신학자나 신학생들 사이에서나 오르내리던 이야기였습니다. 하지만, 이제 한국교회 위기론은 상대적으로 보수적인 총회와 노회에서까지 공공연히 언급됩니다. 이렇게 위기는 기정 사실인데, 우리는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까요?

출발: 교회의 본질을 이해해야 합니다.

교회는 제도나 기관이 아닙니다. 건물도 아닙니다. 조직도 아닙니다. 교회는 생명체입니다. 이 생명체가 건물을 갖고 제도나 조직의 모양을 띠지만, 교회는 본질적으로 꿈틀꿈틀 살아 숨 쉬는 생명체입니다. 사도 바울은 그래서, 교회를 그리스도의 몸이라 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 생명체가 위기다!'는 말은 생명체가 어딘가 병이 들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안에서는 생명력이 왕성하게 일어나지 못하고, 외부의 도전에는 민감히 반응하지도 못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따라서, 어디가 근본적으로 병이 든 것인지 진단만 명료하게 나오면, 처방이 나오게 되고, 그 처방을 따라 교회를 새롭게 하면 위기는 극복되고 하나님 나라는 다시 교회를 통해 확장되어 갈 것입니다.

진단: 교회를 시작하게 한 힘은 '복음'입니다.

복음의 능력이 역사하기 시작하면서 교회가 시작되었고, 성장했습니다. 그렇기에, '교회가 위기에 처했다'라는 말은 지금 교회라는 생명체에서 복음의 능력이 문제가 생겼다는 뜻입니다. 어떤 분들은 사회의 신뢰도가 떨어진 것이 교회 위기라 말하는데, 이것은 위기의 한 증상이지 위기의 본질은 아닙니다. 교회 위기의 본질은 복음의 능력이 약해진 데 있습니다.

그렇다면 복음이란 무엇일까요? 복음은 충고가 아닙니다! 신앙의 안내 매뉴얼이 아닙니다. 경건한 사람이 되기 위한 도덕적 권면이 아닙니다. 복음은 그야말로 듣는 사람의 가슴이 터질 듯 기뻐하게 하는 놀라운 소식입니다. 헬라어로는 <유앙겔리온>입니다. <'유'(<εὐ>)는 '기쁨'이라는 뜻이고, <앙겔리온>(<αγγελιον>)은 '전령', '천사'를 의미하는 <앙겔로스>에서 유래했습니다. 곧, 천사/전령이 전해주는 기쁜 소식을 가리킵니다. 이는 승리를 기다리는 그리스 사람들에게 페르시아와의 전투에서 승리했다는 기쁜 소식을 전하고 숨진 병사를 떠올리게 합니다.

그래서 신약성경의 기자들이 '복음'이라는 단어를 쓸 때는 항상 이러한 맥락을 전제로 썼습니다. 불치병으로 죽는 줄 알았던 자녀가 신약으로 나아서 살아날 길이 열렸을 때처럼, 가슴이 터질 것 같은 기쁜 소식이 바로 복음입니다. 바울은 복음을 전하려다가 고생한 순간들을 기록합니다. 그는 또한 세상의 자랑을 다 배설물로 여겼다고 합니다. 그것은 복음이 그에게 최고로 가치 있는 소식이고, 그의 가슴이 터질 것 같아서 다른 사람에게 전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것이었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복음입니다.

진단: 문제는 교회가 '복음' 대신 '도덕' 위에 세워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오늘날 교회에서 복음이 이렇게 전해집니까? 원래 교회의 능력은 이 복음의 능력 위에 세워진 것인데, 통계에 의하면, 한국교회 목회자 설교에서 복음을 설교하는 것은 5%가 안 됩니다. 20%가 치유 설교, 그리고 70%가 도덕 설교입니다. '정직하게 살아라!', '이웃에게 선을 베풀어라!' 이것도 중요하지만, 이것은 복음이 아닌, 복음이 빚어낸 사람의 삶의 내용을 말하는 것입니다.

교회는 정작 복음, 너무 기빠서 심장이 멈출 것 같은 복된 소식 위에 세워져야 하는데, 복음을 말하지 않고 도덕 설교만 하니까, 교회가 도덕과 권면조항 위에 세워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교회는 시간이 지나면 냉랭해지고, 사람들의 가슴 속에 복음의 능력이 역사하지 않고 도덕이 역사하기에 은혜가 약해집니다. 서로, 견제하고, 판단하고, 공로를 내세우고, 시기심이 많고, 정죄하기 쉬운 이상한 곳이 됩니다. 이것은 현대교회의 치명적 약점이 되었고, 교회는 시간이 지나면 위기에 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 위기를 겪지 않으려고 하나님과 상관없는 다양한 세속적 운영방법을 끌어오게 됩니다. 그리고, 교회는 더 수렁에 빠지게 됩니다.

처방: 복음은 하나님의 다스리심입니다.

죄 사함 받고 천국 가는 것이 복음이라는 말은 복음을 축소한 것입니다. 복음은 사후의 세상에 대한 이야기 뿐 아니라, 지금, 여기, 이 현실에서 실제 일어나는 크고, 놀라운 기쁜 소식입니다.

“때가 찼고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예수님 자신이 복음이신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우리 죄를 사해주신 것이 복음인데, 예수님이 아직 그 일 겪지도 않으셨는데 지금 “복음을 믿으라!”라고 하십니다. 그렇기에 이 말씀은 그야말로 유앙겔리온, ‘심장이 멎을 것같이 기쁜 소식이 지금 너희들 앞에 있다. 이것을 믿으라!’ 이 뜻입니다.

“때가 찼다”라는 말은 ‘하나님의 때가 꼭 찼다’는 말입니다. 계시도 끊기고, 예언자도 끊기며 400년 동안 하나님이 침묵하셨기에 백성들은 하나님이 자신들을 버렸다고 생각하고 낙심했습니다. 그때 “애들아! 이제 때가 찼다. 마침내 너희를 위해 움직이기 시작했다. 너희에게 하나님의 통치가 시작되었다. 하나님이 너희를

다스리신다.” 이것이 복음입니다.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시기 시작한 징표는 메시아를 이 땅에 보내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복음이십니다.

‘하나님께서 다스리기 시작했다. 내 인생을 살피주신다.’는 말은 하나님께서 내 편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에게는 엄청난 기쁨이 될 것입니다. 이 곤고한 인생에 원군이 오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것도, 전능하신 창조주가 내 편으로 오시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야말로 가슴이 뛰는 소식입니다.

이 꿈틀꿈틀 살아 숨 쉬는 복음이 한 사람 안에 장착되어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가 왕이시다” “그분이 내 인생을 다스리신다.” 이것이 확실하면, 나는 세상에 두려워할 것이 없습니다. 로마 황제 앞에서 주눅 들지 않습니다. 황제를 다스리는 분이 내 왕이시니까. 물질이 좀 없다고 쪼그라들지 않습니다. 내가 갖고 있는 것 비록 적어도 기꺼이 이것조차 없는 사람과 나눕니다. 그분이 살피시고, 돌보신다는 엄청난 믿음이 여기서 나옵니다.

이런 사람들이 모인 곳이 본래 교회입니다. 이런 교회 분위기가 어떻겠습니까? 매 주일이 축제고, 페스티벌입니다. 우리를 위해 왕으로 오신 예수님 기뻐하고, 나를 자녀로 불러주신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이 터져 나옵니다. 이렇게 복음의 능력이 숨 쉬는 교회는 활기있고, 역동하고, 경쾌합니다. “어떻게 하면 이 놀라운 은혜를 전할까?” 이 고민하면서 교회를 섬깁니다. 이런 교회를 세울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복음의 능력이 역사하여, 내가 완전히 새롭게 되고, 교회가 새롭게 되는 놀라운 은혜가 임하는 올 한해가 되기를 바랍니다.

말씀 나눔

1. 진정한 ‘복음의 의미’는 무엇입니까?
2. ‘주님이 다스리시며 나를 살피신다’는 복음의 의미가
오늘 여기 바로 나의 삶에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3. 그 외에 이번 공과가 주는 은혜, 위로, 격려, 혹은 도전이 있다면
나눠주시고 기도로 마무리합니다.